

## 남원 달궁 시내버스 요금 최고 5950원

# “버스요금체계 단일화로 주민부담 덜어야”

전북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최고 5,950원까지 받는 지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 도의회 장명식 의원, 5분발언서

“고창·부안·남원·순창, 거리요금제 그대로 유지  
기본요금 1400원에 1km마다 116원의 요금 더 받아”  
남원시, 5월부터 최고 2000원 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

을 가진 이용자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 중·고등학생 요금은 500원이다. 그러나 고창을 비롯해 부안과 남원, 순창은 거리요금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 1,400원에 1km마다 116원의 요금을 더 받고 있다. 그 결과 고창 상하면 섬포 주민들은 4,550원, 남원 달궁 주민들은 5,950원, 부안 모항 주민들은 4,900원 등의 요금을 내고 있다. 장명식 의원은 “이들 주민들은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7-80대의 노인들

로, 왕복버스로 약 1만원을 쓰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노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주와 장수, 임실 등은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공약으로 버스요금 1,000원을 공약했다. 장 의원은 “이들 시군은 중고등학생도 버스요금으로 500원을 내고 있다. 고창과 부안 등의 학생들이 1,1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요금체계를 단일요금제로 즉각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일요금 요금제로 개편한 지역들은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회사 수입 감소액을 용역을 거쳐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단일요금제로 개편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5-6월부터 최고 5,950원까지 받고 있는 거리요금제를 개편해 최고요금 2,000원을 넘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읍과 김제시 또한 최고요금 2,000원제를 채택하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억제하고 있어 고창, 부안 등과 비교가 되고 있다.

장명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고가의 요금체제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답답하다”며 “전북도가 관련 시군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안재용 기자

## “절박한 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전 대표, 故 문광욱 일병 부친과 대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문광욱 일병의 부친을 만나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 문광욱 일병 부친인 문영조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지난 24일 더문캠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표가 전남 전주의 한옥마을에 있는 한 전통찻집에서 문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 씨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안보행보’는 이날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문 일병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에서 파편상을 입고 전사했다. 문 일병의 전사에 그의 친구들이 단적으로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영조씨는 이같은 문 전 대표의 말에 “억울하게 먼저 떠나보낸 광욱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권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사 출신인 문 전 대표가 강한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어 군대 간 아이들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 올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특정사 출신인 문 전 대표야말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준비된 후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에 “박근혜 정부 동안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들도 고통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송구하다”고 고개 숙이며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뉴스

매일 INDEX

- 3면 - 민주당 대선후보자 경선 토론회
- 4면 - 전라강원 복원 착공 준비철차 돌입
- 7면 - 방통위, TV조선 조건부 승인



진실속으로 마지막 항해. 지난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 주듯 핏기고 녹슨 채 3년 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잠수선에 실린 세월호가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목포시항까지 87km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있다.

## 쓰레기 대란, 4개월여만에 ‘일단락’

전주시-시의회-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금 매년 현금 지원 6년 후 50% 인상 합의안 도출

있을만 하면 되풀이되던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주민협의체와 주요 정선 사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4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주시가 현금지원을 계속하기로 해 시민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줄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전주시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와 시의회, 소각장 및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해 주민지원금, 쓰레기 성상확인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쓰레기 반입을 원활히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출현한 합의안에는 주민지원금을 종전처럼 고정액으로 매년 현금으로 지원하고 6년 후에는 50%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막기로 한 가구별 현금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금지원이 계속되는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쓰레기 검사 방식이 10%의 샘플링 확인으로 변경 실시키로 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모든 수거차량에 대해 육안으로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은 분리수거 검사를 차량을 세워두고 쓰레기 봉투를 뜯어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차량 회차와 반입 금지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부적 폐기물이 발견된 차량에 대한 회차 및 반입 금지 등의 권한도 시로 넘겨졌다. 시는 부정 폐기물이 배출된 곳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경고장 발부, 회차 조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차량 회차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에서는 잇을 만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곤 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가구별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김민근 기자

안철수 “새도 캐비닛 반대”



안철수 전 국민 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새도 캐비닛에 반대한다. 선거캠프 구성원으로 정치관급을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주를·병 지역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에 필요한 상대방 캠프의 사람도 나라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면 중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새도 캐비닛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을 잡아서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자기와 만나본 사람만 채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새도 캐비닛(Shadow cabinet)은 그림자 내각이라는 의미로,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내각을 말한다. /뉴스

부안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목이 가득합니다. www.buanmasil.com

“어화세상벗님네야~ 복받으러마실가세~”

2017.5.4(목)~5.6(토)

# 부안 마실축제

제5회

\*주관 부안마실축제추진위원회  
\*축제주최 부안예술회관(전북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전북 부안군 일원 (주행사장:부안읍)